

요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성교육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의 보건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홍보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성(性)의 이해

- 포르노그래피와 성 매매 -

성 상담 전문위원
심 창 교

요즘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성에 대한 정보와 유혹을 받으며 현대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 여기저기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음란물과 성 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1) 포르노의 뜻

그리스어로 매춘부 또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여성을 뜻하는 단어(Porne)와 그림이나 묘사를 뜻하는 단어(Graphos)의 합성어이다.

포르노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또는 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하여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이라고 설명한다.

2) 기준의 상대성

도대체 어떤 그림이 포르노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는 매우 애매한 문제이다. 일부 여성운동가들은 예술성의 여부에 따라서 포르노와 에로티카의 차이를 구분하기도 했으며, 그들은 성적인 장면을 토대로 여성이 비하되거나 굴욕적으로 묘사된 경우를 포르노, 즉 외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의 묘사는 에로티카, 즉 예술이라고 구분하였다. 포르노는 주로 남성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발달했다고 짐작이 되며, 고대 사회에서도 전쟁 중 잡힌 여성을 남성들의 성적 노리개로 생각하고 그 성 행위 묘사를 하여 사기를 높이는데 이용되었을 것이다.

포르노그래피의 문제는 그 어원의 뜻에서 보듯이 여성이나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인 것이다.

3) 포르노에 대한 왜곡된 인식

● 포르노는 젠더가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문제이다.

포르노는 “섹슈얼리티 만의 독자적인 영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섹슈얼리티의 문제이지 젠더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포르노 문제에서 여성이라는 범주를 의도적으로 지워 버리거나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함축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포르노는 인간의 억압된 성적 욕망과 성에 대한 금기와 관련된 문제이지 남녀의 권력관계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포르노를 성으로 동일시하고 그 다양성을 관점 없이 인정함으로써 발생한다. 포르노는 성적 욕망에 관계되고 성 행위를 보여주므로 성과 관련이 있으며, 성별 권력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언어와 느낌은 남녀의 불평등한 성적 지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성별 권력 관계 위에서 생산된다.

● 포르노는 단지 말이나 그림일 뿐이며, 영화처럼 보는 순간 끝나고 마는 경험일 뿐이다.

포르노에 대한 많은 논의는 그것을 일종의 장르로서, 글이나 이미지의 형식을 띤 물질적 매체로 다룬다. 다시 말해 포르노는 성 행위를 보여주고 재현한 것이다. 그러나 포르노가 재현이라는 관점은 포르노가 개인의 경험과 사회 현실과는 분리된다는 오해로 이어진다. 사실 이러한가? 현실에서 인간은 이미지를 통해 성경험을 상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 포르노 보기는 ‘시각’과 ‘생리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인지’와 ‘행동’에 관련되는 사건이다.

● 포르노는 다양한 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포르노가 재현한 성은 ‘사실’ 또는 ‘진실’로 절대화된다. 거짓이고 과장된 듯 보여도 포르노는 최소한 내가 아닌 남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섹스를 이렇게 한 다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르노가 보여주는 성은 진리로 각인된다. 있는 그대로 보이게 꿈, 믿게 꿈 의도된 재현일 뿐이다.

● 포르노의 성행위는 현실이 아니라 연기이다.

포르노를 영화로 생각하는 사람은 포르노의 성은 실체가 아닌 연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포르노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맞춰 연기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포르노의 성을 연기라고 치부할 때 우리는 포르노에 나오는 수많은 성폭력을 용인하고 용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연기는 포르노의 폭력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다.

● 남자는 본래 포르노를 좋아하고 여자는 싫어한다.

오랜 세월 동안 포르노는 남성에 의해, 남성을 위해, 남성의 욕망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흥분과 발기, 사정을 주기로 하는 남성의 성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포르노는 여성의 성적 욕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

을 담고 있다. 즉, 남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남성은 포르노를 좋아하고 여성은 싫어하는 것이다. 이는 남녀의 생식기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화된 정서와 인습에 의해 자리잡은 것이다.

● 포르노는 남성의 성 충동을 해소하여 여성의 성을 보호한다.

포르노는 매춘처럼 억압된 배설의 욕구를 해소하여 여성의 성을 보호한다고 옹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르노가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만 하는가? 포르노는 욕망의 생산과 해소라는 시작과 끝이 없는 연속선 상에 있다. 포르노는 매춘, 강간 애인과의 성, 아내와의 성을 별개로 겹치면서 하나의 성적 실천으로 존재한다. 성을 매매하는 과정과 실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개입한다. 즉, 포르노를 통해 성적 욕망을 자위로 그치지 않고 실제 파트너에 대한 성적 욕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 포르노는 성폭력과 무관하다.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라는 명제는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이 명제는 포르노가 성폭력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포르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 성폭력의 원인을 밝힐 때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그러한 결과를 이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포르노는 단순한 인과 관계는 아니지만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성폭력

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간접 경험, 강화, 이미지를 통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 포르노 반대는 곧 검열의 찬성이며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반적으로 포르노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검열에 찬성하고, 포르노를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검열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포르노에 반대한다는 것은 검열에 찬성하는 것으로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 포르노에서 여성은 성기와 성적 부분으로 성적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여성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아닌 것이다.

● 포르노 문제의 근원은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인간의 욕구는 점차 시장의 욕구에 굴복해 가고 있다.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생산과 만족이 규정되고 조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예는 사실이지만 자본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의도와 기획을 관장하는 남녀의 권력 관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포르노의 문제는 건강한 성과 그렇지 않은 성과의 사이에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과정이다.

2. 성 매매

1) 성 매매란?

윤락, 매음, 매매춘 등으로 많이 불린다. '노출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Prostitue)에서 유래하였는데 자유로운 성교 행위가 제한된 사회는 어디에서나 매춘이 존재했으리라고 추측된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늘 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대부분의 매춘은 여성에 의해 일어나고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다. 왜 여성들은 다른 직업이 아닌 성 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가는 경제적 문화적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존속되고 유지된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

남성손님과 매춘여성사이에 이루어지는 성 매매 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 매매는 남성손님이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지불된 돈으로 자신의 몸은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와 신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학대나 폭력 같은 행위 앞에서 여성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신체는

권리의 기본 토대이고 권리와 존엄성의 출발이다.

● 익명적 성: 성 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남성들이 성 매매를 이용하려는 욕구에는 비밀보장과 새로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전제되어 있다. 익명적 성을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전제는 남성들이 성 매매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성 매매의 성격과 매춘여성의 삶의 유형을 설명한다. 이러한 익명성과 단절은 남성에게 구매력을 자극하도록 하며, 매춘을 확산 유지시킨다. 이러한 고립은 포주나 주인으로 하여금 착취를 더욱 쉽게 하도록 하며, 여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 성 산업의 먹이사슬: 성 매매와 성 산업

현재 우리 사회의 성 매매는 유흥업소나 알선업체 등의 성 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매춘여성이 남성손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계약을 맺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매춘여성은 포주집으로부터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남성손님과 작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등에 고용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형식적으로 볼 때 업주와 매춘여성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상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고용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춘여성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거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매춘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화대에 대한 분배와 벌칙, 빛과 이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매춘 여성에게 지우는 빛과 이자는 경제적 착취의 수단 뿐 아니라 인신 구속과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성 산업 주변에 형성된 먹이사슬은 매춘 여성이 성 산업에 이용되는 것에 기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 산업을 유지, 보호하고 매춘 여성의 탈매춘을 방해하는데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갖는다.

3) 성 매매 예방을 위한 작업

성 매매는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성 매매의 문제를 가시화 하지 않는 한 언제나 그랬듯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옴아매고 있는 빛과 폭력에서 자유롭게 해야하며, 그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성 매매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육

체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이다.

성 매매를 이야기할 때 확실한 사실은 성 산업은 성 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 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서 간주하든지 간에 성 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적 맥락에서 발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요즘은 성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자발적인 성 매매도 일부분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개인의 윤리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 기본 바탕에는 익명성과 단절에 대한 성 매매의 특징이 가지고 온 결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출처

